

# 보도자료



보도분류	브리핑( ) 보도자료 제공( ✓ )
보도일시	<b>2023. 6.20.(화) 15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b>
작성과	신성장산업유치과
담당	과장 김연주 / 바이오헬스케어PM 김희정 (032-453-7654)

## **인천시, 롯데바이오로직스 메가플랜트 유치로 ‘초격차 바이오 도시’ 완성**

인천시-롯데, 송도 11공구 내 롯데바이오로직스 바이오의약 연구개발제조시설 유치 MOU 체결  
롯데바이오로직스, 총 30억 달러 규모의 바이오의약 메가플랜트 건립 연내 착수 예정

- 인천경제자유구역청(“경제청”)은 20일 송도 G타워에서 롯데바이오로직스 바이오의약 메가플랜트 유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.
- 체결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 김진용 경제청장, 롯데지주(주) 이훈기 사장, 롯데바이오로직스(주) 이원직 대표이사가 참석하였다.
- 양해각서는 송도국제도시 11공구 산업시설용지 내 롯데바이오로직스의 바이오의약 연구개발 및 제조시설의 원활한 유치를 위한 당사자들의 역할 등을 명시하고, 롯데바이오로직스의 연내 부지확보 및 시설착공을 위한 적극적인 상호 협력을 확인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.
-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연초 총 30억 달러를 투자하여 3개의 바이오의약 연구개발·제조시설 건립 계획을 밝힌 바 있다. 1개의 제조시설 당 12만 리터 규모의 항체의약품 배양설비를 갖추어 총 36만 리터의 항체의약품 메가플랜트를 구축하게 되며, 바이오의약 분야 벤처·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(바이오벤처 이니셔티브, Bio-Venture Initiative)도 운영한다는 입장이다.

- 송도는 이미 단일 도시 기준 세계 최대 바이오 의약품 생산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, 셀트리온, 삼성바이오로직스, SK바이오사이언스 등 국내 최고의 바이오 기업들과 머크, 싸토리우스 등 글로벌 원부자재 기업들이 대규모 연구개발·제조시설 투자를 지속하고 있어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로서 절대적 위상을 확보하고 있다.
- 뿐만 아니라, 3월 22일 바이오의약 분야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‘K-바이오 랩허브’ 조성사업을 위해 인천시, 중소벤처기업부, 바이오분야 30여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, 지난 6월 9일에는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와 제약 바이오실용화센터가 착공되는 등 혁신적 연구개발과 우수한 인력공급을 위한 인프라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바이오산업 생태계가 날로 고도화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.
- 체결식에서 이원직 롯데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는 “송도 메가플랜트의 연내 착공을 목표로 롯데지주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조속한 토지매매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, 경제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- 김진용 경제청장은 “오늘 양해각서 체결은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의 글로벌 경쟁력과 무한한 잠재력을 방증하는 대표적인 사례”라고 밝히고, “롯데바이오로직스 시설투자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”고 덧붙였다.
- 유정복 인천시장은 “롯데바이오로직스 투자유치로 인천은 ‘초격차 바이오 도시’ 위상을 더욱 공고히 다지게 되었다”고 평하고, “인천이 대한민국 경제를 재도약시키는 구심점이 되도록 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 투자유치와 산업육성에 더욱 매진하겠다.”고 포부를 밝혔다.

※ 관련 사진은 행사(15:00) 이후 인천시 홈페이지 ‘인천시

인터넷방송’(<http://tv.incheon.go.kr/>) ‘포토인천’에 게시될 예정입니다.